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채 정 민[†]

김종남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정체감을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에서 다루고, 이 상대적 박탈감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려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집단 차원에서만 다루던 측면들을 개인 차원에서도 다루고, 집단 내와 외로 구분하는 방식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절대적 박탈감을 고려하기 위해 먼저 개인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 측정 도구와 절대적 박탈감 측정 도구를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21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절대적 박탈감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각 상대적 박탈감에 자아정체감과 남한 사회정체감이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북한 사회정체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은 통일 독일의 동독출신자들처럼 이기적 박탈감보다는 우애적 박탈감 형태를 보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각 상대적 박탈감들은 우울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생활만족도에는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박탈감, 심리적 적응, 북한이탈주민, 통일, 문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유입자 수가 점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적응(예, 윤인진, 1999), 사회 문화적 적응(예, 채정민, 2003), 심리적 적응(예, 채정민과 한성열, 2003) 등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최종적인 적응 지표로 간주되는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 초기에는 이들의 우울감과 죄책감(예, 한인영, 2001)과 같은 개인 내적 측면에 주로 집중되었는데, 점차로 편견과 차별(예, 김혜숙, 2003)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편견, 차별,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통일된 지 13년이 흐른 독일에서 경제적 여건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동독 출신자들조차 상대적 박탈감을 점차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보고(Schmitt & Maes, 2002)가 있기 때문이고, 이 보고가 공개적으로 거론됨으로써 이를 인지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

[†] 교신저자: 채정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전화: 02-3290-1636, E-mail: minsmin@unitel.co.kr

신들에게 이 점이 발생한다고 자기예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이후나 현재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이미 통독에서 발생하는 동독 출신자의 '2등 시민화' 현상이 북한이탈주민들 관련 담론을 통해 강력하게 제시되어 온 점(예, 전태국, 2000)을 들 수 있다.

둘째,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통독 이후 동독 출신자들은 집단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Schmitt 등, 2002). 그런데, 집단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에는 독특한 기제가 작용한다. 그 기제란 Tiraboschi와 Maass(1998)가 밝힌 바대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이다. 첫째, 개인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보다 집단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면 사회적(집단) 행위화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행위화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집단 구성원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준거 집단 구성원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다. 실제로, 서독 출신자들이 불우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독 출신자들에 대해 측은지심적 입장에서 동조하게 되고, 동독 출신자들이 사회적 행위화할 때 동참하는 경향이 많이 드러났다(Schmitt 등, 2002).

셋째, 상대적 박탈감은 통일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빈부, 지위, 기타 사회적 자원의 격차가 발생할 때 더욱 더 크게 부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점차 발전하고 있고, 국내 유입 초기부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점차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상의 이유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화되기 시작하는 초기 시점에서 연구를 통해 그 수준과 경과 기제를 확인함으로써 현재와 향후의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더 더욱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어떠한 연구 틀과 접근 방식에 의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다행히 이와 유사한 측면을 다룬 연구(박군석, 2002)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는 영·호남 지역 갈등의 문제를 상대적 박탈감 관점에서 다루었고, 상대적 박탈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사회적 행위화의 문제를 취급하였다. 이 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차원이 아닌 집단 차원의 지역 감정 문제를 다룬 점은 잠재적으로 지역 감정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북한이탈주민 집단 대 남한 주민 집단의 잠재적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영·호남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식으로 다룰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서, 첫째,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분단된 상황에서 극한 대치, 심한 상호 반목과 질시, 비방과 폄하 등이 있었으므로 지역 갈등의 행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이 점은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고정관념 연구(예, 김혜숙, 2000)나 이미지 연구(예, 심진섭, 1995) 등에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난 점에서 확인된다.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심한 고정관념도 있는데, 김귀옥(2000)의 연구에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거지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

과 북한이탈주민을 동일하게 지각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이 동등하게 평가되지는 않지만 거의 동일선 상에서 인식되고 있음이 여러 연구(이수정, 1999; 전우영, 1999; 전우영과 조은경, 2000 등)에서 드러났으므로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누적 입국자 수가 2003년 7월말 기준으로 3,835명(이금순, 강신창, 김병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 2003)이라는 점에서 남한 인구 대비 약 0.0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가진 독특한 신분 때문에 수적 측면과 상관없이 대응집단이 될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여러모로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김광익, 1999), 이에 걸맞는 집단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도 이들에 대해 특별한 신분과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영·호남 주민들 상호간에 대해 집단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하는 것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아직 남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집단 차원의 고려 대상이 될 정도로 권력이 강하거나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언급한 ‘거지떼’로서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남한 주민들은 자신들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개인 차원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북한 주민 집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내집단 즉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남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외집단의 구분이 가능하고 남한 주민 집단을 경쟁 집단으로서 인식할 것이어서 남한 주민 집단을 상대로 집단 차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이 순수한 개인 차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지닐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Runciman(1966), Crosby(1976), Townsend(1979), Folger(1986) 등의 선구 학자들의 연구 접근 방식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개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그 비교 기준에 따라서 집단 내와 집단 외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구분의 실익이 있다. 즉,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개인 차원에서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강도가 낮으면서 남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는 경우라면, 이 부분이 제일 문제시되는 경우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에 대해 무조건적 거부반응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연구는 편의상 박군석(2003)의 연구 틀을 수용해서 진행하되, 개인적 수준의 상대적 박탈감을 북한이탈주민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영·호남 지역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는 공정 분배의 측면도 작용하지만 그보다는 자기 스스로 기대하는 수준에 미달한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이 경쟁 집단 구성원들과 집단적 관점에서 특정한 자원을 생산해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이에 따른 분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기존 정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 이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기존 정의는 주로 2가지 측면에서 나뉜다. 첫째는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분배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Runciman(1966)의 정의는 소득 즉, 경제적 빈곤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정의는 경제적 측면을 다루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절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문제를 명백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즉, 경제적으로 절대적 박탈감 수준에 있는 극빈자가 박탈감을 느낀다면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절대적 박탈감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불분명하다. 이후 Townsend(1979)는 소득 중심의 기존 박탈 개념이 너무 협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객관적 박탈, 관습적으로 인정되거나 규범적 박탈, 개인의 주관적 혹은 집단적 박탈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객관적 박탈은 의식주와 관련된 객관적 생활 조건상에서의 결핍을 의미하고, 관습적 혹은 규범적 박탈은 해당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즉, 최저 생계 기준과 같은 선 이하에 있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주관적 혹은 집단적 박탈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과 비교된 관점에서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3가지 결핍 중 개인의 주관적 혹은 집단적 박탈이 진정한 의미의 상대적 박탈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학자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Runciman의 견해에서 강조된 경제적 측면과 Townsend의 개인의 주관적 혹은 집단적 박탈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분배 공정성에 대한 고려 여부인데, 초창기에는 Runciman(1966)이 중심이 되어 분배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개인이 현 상태에 대한 자기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었다. 그(1966)는 ‘개인들이 박탈의 절대적 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박탈이나 성취의 수준을 고려한다’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적 정의를 Crosby(1976; 박군석, 2003에서 재인용)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즉, ① 내가 원하던 대상 X를(바람), ② 자기 이외의 누군가도 이 X를 바라고 소유하고 있으며(비교대상), ③ 자신이 대상 X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느껴야 하며(자격감), ④ 자신이 대상 X를 소유하는 일이 실현가능했었다고 생각하며(과거 실현가능성 인정), ⑤ 대상 X를 소유하지 못한데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경우(책임감 없음)에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관점이 지닌 장점으로는, 특정한 공동 작업을 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되는 상황 이외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주장을 토대로 이후에 이기적인(egoistic) 상대적 박탈감과 우애적인(fraternal) 상대적 박탈감의 구분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반해서, Folger(1986, 1987)는 성과와 절차상의 분배 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정의하였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준거인지이론(referent cognition theory)’을 제시했는데, 이 이론의 핵심 3요소는 준거 결과, 가능한 대안 결과, 정당화이다. 준거

결과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추진했다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을 말하고, 가능한 대안 결과란, 현재는 얻지 못하는 것이지만 장래에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말하며, 정당화란, 일이 현재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Folger와 Martin(1986)이 지적한 바대로, 자신에게 불공정한 현 분배 절차가 아닌 다른 분배 절차가 적용된다면 자신에게 좀 더 바람직한 성과가 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가지는 인지와 감정이다. 따라서 이 관점으로, 분배 상황에서 정의와 대의를 매우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각할 때 지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후자가 나중에 등장하여 상대적 박탈감 현상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첫째, 상대적 박탈감 연구의 영역을 매우 제한한다. 즉, 투입량 대비 분배 성과량 도식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공동으로 참여한 대상자들을 염두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정 사안과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다소 막연한 상대적 박탈감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제한된다. 둘째, 지나치게 합리적 인간관에 기초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다양한 조건을 시뮬레이션적으로 탐색하여 얻은 결과로서의 현재 분배받은 결과가 공정성과 분배 절차상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때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점에도 불구하고 Folger(1986) 식 관점이 각광을 받았던 잠재적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을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실험적 연구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는 경제 중심 여부 차원에서는 Runciman(1966)과 Townsend(1979)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분배 공정성 여부 차원에서는 Runciman(1966)의 관점을 채택하며, 여기에 다소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를 하기로 하였다. 즉, ‘개인들이 박탈의 절대적 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박탈이나 성취의 수준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그 판단 결과가 자신에게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하게 될 경우’이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 박탈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앞서 Runciman의 주장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절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마련이고, 이 상태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물론 이 절대적 박탈감을 지닌 사람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대체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둘째,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대적 박탈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풍요롭게 살고 있을 경우에도 이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것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확히 평가됨은 경우가 아니고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더 더욱 확실

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박탈감의 관계에서 전자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박탈감이 혼재되어 경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칫 순수한 의미의 상대적 박탈감을 구분해내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절대적 박탈감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상대적 박탈감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절대적 박탈감까지 연구에 포함하여 다루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더욱 그렇다.

상대적 박탈감과 정체감

상대적 박탈감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를 의식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떠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가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체감을 개인 차원의 정체감과 집단 차원의 정체감으로 구분해야 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최대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개인적 정체감과 상대적 박탈감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정체감을 자아정체감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자아정체감에 대해 Erikson(1963)은 ‘자아(ego)가 성격의 내적 구조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력과 이러한 통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신의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의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Marcia(1966, 1980), 이춘재 등(1988), 박아청(1996)을 비롯한 많은 학자가 자아정체감에 대한 정의해왔는데, 이 역시 개념의 포괄성이 너무 크다는 비판을 받고 현재는 하위 요인별로 구분해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다(김성일, 김남희, 2001). 그렇다고 해서 자아정체감을 하위요소로 구분해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상위요인으로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Dignan(1965)의 정의가 주목할 만한데, 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는 것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자기참조적(self-referent) 심상들의 복합체’라고 정의하였고, 그 하위 요소로서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관계, 대인역할 기대, 자기수용, 자기존재에 대한 일관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견해를 이어받은 서봉연(1975)은 여기에 자기주장을 포함시켜 8개 요인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룰 변수가 많으므로 연구의 틀을 가급적 간략하게 하기 위해 서봉연(1975)의 견해를 수용하여 이를 전체로만 다루도록 하겠다.

자아정체감을 제대로 성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다른 속성을 보인다. Waterman(1982)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사람들은 해당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잘 해결한다. 이외에도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김동직(1992)은 이를 종합하여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능동적이며,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갈등이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효과적이고 적응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즉,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하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다고 지각한다면 해당 상황을 무시하거나 조정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사회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걸맞게 재정립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지각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집단적 정체감과 상대적 박탈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집단적 정체감이란 예를 들면, 한민족이 가진 독특한 집단적 수준의 정체감, ‘한민족은 백의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고’의 집단적 특징을 한민족의 일원인 개인이 내면화하여 자신도 평화를 사랑한다는 등의 태도를 지닌다고 할 때, 이는 개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해당 사회의 일원임을 의식하기 위해 해당 사회의 특징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집단적 정체감은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정체감이다. 물론 이 사회적 정체감은 속성상 해당 개인이 속해 있는 다수준적(multi-level) 사회 집단 범주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정체감 형태로 지닐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 초점을 맞춰 남한 집단, 북한 집단,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같은 수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사회적 정체감 수준과 개인의 적응 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Adler(1975)가 “모든 문화는 개인들에게 정체감, 어느 정도의 규정, 소속감, 뿌리내림의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는 개인은 해당 문화에서 제공되는 정체감을 잘 수용하여 내면화할 때 적응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도 남한 사회의 문화를 잘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정체감은 단순한 몇몇 요소를 내면화함으로써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정체감은 해당 사회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구조를 띤다(Tajfel, 1978). 따라서 한 개인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모두 잘 내면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면, 이 요소들에 대한 내면화 과정의 속도차가 발생하여 불균형 혹은 부조화된 사회적 정체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정체감 형성은 실무율적인 관점보다는 연속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개인적 정체감과 아울러 사회적 정체감을 재정의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Horenczyk, 1996; Roccas, Horenczyk, Schwartz, 2000 등)은 연속적 관점이 유효하다. 또한, 이 접근법을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과 북한에 대해 각각 가지는 사회적 정체감을 구분하되 비교하여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관점을 취할 경우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토대로 내집단 성원에 대한 우호 편향과 외집단에 대한 경쟁이나 적대행동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 Tajfel(1978)의 주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Tajfel(1978)의 주장을 최근에 유럽지역에서 검증한 연구들의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박군석(2003)이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이러한 내외집단 구분에 따른 차별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류 사회에 대해 무조건 적대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남한 사회를

북한 사회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서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당국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남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해 부정적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남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해 최소한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에 의해 차별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는데, 이 상황에서 남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와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Tajfel(1978)의 주장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정체감에 대해 실무율적 접근이 아닌 연속적 관점이 유효하다.

이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정체감은 남한과 관련된 것과 북한과 관련된 것을 구분해서 측정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과 관련된 것은 북한 지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들 집단에 대해서만 국한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이 모국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는 차원과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남한에 입국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은 이기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우애적인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아정체감이 낮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개인의 자아정체감이 높을 경우에는 이기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적게 느끼지만 우애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많이 느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의 근원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대로 통독에서 동독 출신자 중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개인적 정체감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독 출신자를 포함한 통일 독일 전체 국민들 중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됨으로써 갖게 되는 부정적 정서를 동독 출신자 집단이 서독 출신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 상태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군석(2003)이 영호남 주민 대상 연구에서 집단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감 수준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지위가 낮고 사회적 정체감은 높으며 안정적인 조건에서 합법성이 낮은 경우 더 많은 집단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관련성이 확인된다.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기존의 연구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가 밀접함이 밝혀졌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이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우울감에 대한 연구(한인영, 2001)에서 이들은 남한 주민들보다 더 많이 우울증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남한 정착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남한 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원만치 않음이 드러났다.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심리적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점을 가질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단, 그 관계성이 두 변인 중에서 어떠한 변인이 선행 변인으로서 작용해서 인과관계를

보일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더 지각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Beck(1976; 원호택 외, 1996에서 재인용)이 제시한 우울증의 악순환 피드백 가설에 따르면 우울한 경향을 지닌 사람은 어떠한 사건을 지각할 때 우울한 경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경향을 지닐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 박탈감도 집단적 차원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울 경향이 낮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좋은 상황에 있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지닐 이유가 별로 없지만, 자신이 처한 다소 좋지 않은 상황을 외부 귀인하여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이 경쟁 집단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봄으로써 그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Schmitt 등(2002)의 연구에서 동독출신 주민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는 반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은 앞서 내린 정의에서 본 것처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정신 건강을 해치는 작용을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좌절로 경험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Dollard-Miller의 공격성 가설에 의하면, 좌절을 느끼면 분노로 다시 공격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행동 의도 동기가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드러날 가능성으로 설명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이 2가지 관점이 시간의 경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면 초반에는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만, 점차 시간이 경과되면 해당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동기 유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특히, 박군석(2003)이 상대적 박탈감을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미세하지만 이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인지적 형태로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정서적 형태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신 건강에 치명적 해를 입히지는 않고 건전한 방식으로 자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서 행동적 측면, 정확하게 말해서 행동의도박탈이 상대적 박탈감의 한 부분인가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후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별개의 측면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연구 과제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절대적 박탈감 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대적 박탈감을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하는데, 개인적 수준의 상대적 박탈감 측정 도구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새로이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항목의 대다수를 절대적 박탈감 형태로 변환하여 개인적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개인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이 상대적 박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적 정체감은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정체감은 남한과 북한에 대한 정체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절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정신 건강은 기존에 주로 사용된 지표인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지표 이외에 추가로 생활만족도라는 긍정적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것은 더 더욱 최근 들어 Seligman와 Csikszentmihayli(2000)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긍정적 심리학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있게 별도로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1 : 개인적 수준의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박탈감 측정 도구 개발

예비 조사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대조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이 점에서 기존에 박근석(2003)이 제작한 집단적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개인적 차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하는데 적용하여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도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 개론 수강생들(남자 28명, 여자 22명, 평균 연령 21세 7개월)에게 상대적 박탈감의 경험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자신이 보기에 충분한 수준이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때 어떠한 느낌을 경험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하게 했다.

응답 결과를 영역별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의 영역에서는 정서적, 경제적, 능력 관련 단어가 중심이었다. 이는 곧, 대부분의 타인보다 자신의 능력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보는 경우에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절대적 박탈감 수준은 벗어나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는 외모, 일반 능력, 경제력, 소비력, 고시 합격 등의 능력, 외국 유학 경력 등의 학력, 외국어 구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부모로부터의 남다른 혜택 등의 측면을 중심으로 드러났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 지각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는, 열등감, 분노감, 초라함, 부러움, 시기심, 짜증, 불안감, 회의감, 시기심, 부당감, 불공정감, 불쾌감, 위화감, 언짢음 등이었다.

측정 도구 개발 절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는 측면에서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비슷한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고, 중심 내용은 ‘능력’이었으며, 상대적 박탈감 지각 시 부정적 정서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문항 구성을 하

였는데, 원칙적으로 앞서 파악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영역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정서가 수반되는가의 여부를 ‘언짢음’과 ‘화남’으로 규정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고려했는데, 박군석(2003)의 연구를 비롯해 선행 연구들이 주로 다룬 정서가 ‘언짢음’과 ‘화남’이라는 점과 근접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상대적 박탈감 개념을 하나의 구성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맥락을 단일화하고, 비특수 맥락 차원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동년배와의 비교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연구자 본인이 직접 10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심리학과와 상시 연구팀에서 문항 구성 의도와 문항의 구성 내용 간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이 회의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 꼭 동년배와만 관련되는가의 문제와 ‘정서가 언짢음과 화남으로 분리됨으로써 맥락에 대한 정서 경험을 동질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비교 기준을 명시적으로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을 별도로 구성하여 반영했고, ‘화남’과 같이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언짢음’과 같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로 통일시켰다. 최종적으로 문항 구성은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부모님에게서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나는 마음이 언짢다’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었고, 각 문항에 대해서는 7점의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박탈감 수준을 파악해 보아야 하므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하려고 구성한 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되, 부정적 정서의 수반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동년배에 비해 부모님에게서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다’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고, 이것 역시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했다.

타당화 작업

이렇게 구성된 문항으로 척도를 제작하여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시내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110명(남자 68명, 여자 42명)이었다. 여기서 얻어진 자료 중에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척도에 대해 분석했는데, 문항-총점 간 상관의 최소 .53이상이었다.

표 1.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문 항	상대적 박탈감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언짢다.	.887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외모가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언짢다.	.852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경력이 더 나은 사람이 보면 내 마음이 언짢다.	.850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언짢다.	.826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타고난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언짢다.	.821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학력(학벌)이 더 좋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언짢다.	.805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인간관계를 더 넓게 잘 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언짢다.	.798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부모님에게서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언짢다.	.776
동년배 중에서 나보다 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사람을 보면 (예, 복권 당첨) 내 마음이 언짢다.	.681
고유근(eigen value)	5.94
설명량	66.1%

단, 1개 문항(성실함)은 평균이 2.7점(SD=.92, 7점 척도)으로서 현저히 낮고, 매우 편중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제외했다. 이후 나머지 9개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인적 상대적 박탈감의 구성 개념 구조를 확인하였다(표1 참조). 주성분 분석을 통해 비회전 요인 분석에서 고유근이 1이상인 요인 수는 1개이었고, scree test 결과에서도 요인 수는 1개가 이상적으로 드러났다. 모든 문항들은 communality가 .46이상이어서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이들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요인 설명량은 66.1%이었고,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0이어서 적합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절대적 박탈감 척도에 대해 분석했는데, 문항-총점 간 상관이 최소 .24이상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9개 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적인 절대적 박탈감에 대한 구성 개념의 구조를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비회전 요인 분석에서 고유근이 1이상인 요인의 수는 2개이었고, scree test 결과에서도 요인 수가 2개가 이상적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각 문항들은 1개만을 제외하고 모두 communality가 .38이상이어서 척도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여기서 communality가 최저인 것은 행운 관련 문항으로서 .24이었다. 이 문항은 또한, 요인 분석에서도 양측 요인에 모두 거의 균등하게 관련되어(.339와 .378)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8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2 참조). 이들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요인 수는 2개이고, 각 요인의 설명량은 32.3%, 27.4%로서 총 설명량은 59.7%이었다. 여기서 요인 1은 '경제 외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인 2는 '경제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 요인에 대한 명칭 부여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일단 유보하기로 한다. 또한 이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1이어서 적합한 수준이었다.

표 2. 개인적인 절대적 박탈감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요인 2
나는 동년배에 비해 여러모로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다.	.842	
나는 동년배에 비해 타고난 외모가 수려하다.	.838	
나는 동년배에 비해 경력이 우수하다.	.639	
나는 동년배에 비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478	
나는 동년배에 비해 부모님에게서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다.		.807
나는 동년배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다.		.740
나는 동년배에 비해 부유하게 사는 편이다.		.721
나는 동년배에 비해 학력(학벌)이 높다.		.461
고유근(eigen value)	2.58	2.20
설명량	32.3%	27.4%

* 요인부하량이 .30이하는 제외함

상대적 박탈감의 비교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과 직접적인 방식으로 각각 질문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응답자들이 올바르게 옳은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능력과 관련이 많다는 앞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귀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때 주로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십니까?’의 간접적인 질문을, ‘귀하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주로 누구를 기준으로 느끼십니까?’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3과 같다. 2 가지의 질문 모두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동년배를 기준으로 한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기준은 대체로 동년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상대적 박탈감 평가의 준거 대상

	동년배	선배	후배	부모님 세대	기타
간접적 질문 방식	79(71.8)	17(15.5)	1(.9)	7(6.4)	6(5.5)
직접적 질문 방식	76(69.1)	6(5.5)	14(12.7)	10(9.1)	4(3.6)

()안은 %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이 척도를 개발했다. 이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단지 능력이나 경제적 측면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나 인간관계 측면 등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와 아울러 개인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박탈감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거의 동일한 문항 내용을 담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절대적 박탈감 척도를 개발했다. 이는 자신이 동년배에 비해 어느 정도의 박탈감을 경험하는가를 평가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경제 외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요인 구조와는 다른 점을 보인다. 즉, 개인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 박탈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일한 요인 구조를 띠는 점이고, 절대적 박탈감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측면도 중요시되는 복합 구조임이 드러났다.

연구 2: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박탈감

한 사회의 원래 구성원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도 개인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특정 참조 집단 내지 대립 집단을 기준으로 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처럼 새로운 사회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좀 더 특수한 조건을 감안하여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착 초기 조건이 어떠한가, 정착이 지속되면서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게 되는가 등의 문제이다. 이 중에서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착 초기 조건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성, 연령, 이전 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가족 동반 이주 여부 등으로 대체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이다. 물론 경험에 해당되는, 정착 경과 기간, 현재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 유무, 성격적 특징 등의 변수도 중요하다. 여기에 덧붙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절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Schmitt 등(2002)과 Tiraboschi 등(1998)의 연구에서 동독 출신자와 서독 출신자들이 보인 모습에서 확인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요소와 변화 여지가 있는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착 과정 중에서 직업 유무의 경우는 정부나 관련 단체 혹은 개인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더 용이하다. 그리고 성격 특징은 상당 부분이 불변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변화 요소도 존재한다. 그 이외의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단, 절대적 박탈감은 상대적 박탈감과의 관련성 차원에서만 다루었다.

- 과제 1.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와 북한이탈주민 집단 외 성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 과제 2. 개인과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수준 간의 관계성을 확인한다.
- 과제 3. 개인과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수준이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확인한다.
- 과제 4. 개인과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수준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및 절차

조사 대상자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착 경과 기간별로 구분하지 않고 성별 균형을 감안하여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방법은 이들의 전집 수가 많지 않고, 별도로 표집하기가 어려워 변형된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적용하여 표집하였다. 이들 자료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자 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1명(남자55명, 여자 66명)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34세 8개월(SD=12세 10개월)이었고, 연령 범위는

18~70세까지이며, 평균 정착 경과 기간은 약 2년 10개월(SD=1년 10개월)이었고, 평균 북한 이탈 경과 기간은 약 4년 9개월(SD=2년 2개월)이었다.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평균 4.5수준(SD=1.8)/9수준, 하위층은 29.8%, 중위층은 51.2%, 상위층은 19.0%)이었고,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간 이하 정도(평균 3.65수준(SD=1.6)/9수준, 하위층은 38.8%, 중위층은 58.7%, 상위층은 2.5%)로서 북한에서보다 .9수준 정도 하락한 것으로 이들은 지각하고 있었다. 국내 입국시 가족 동반 여부를 보면, 단독 입국이 40.5%, 가족 일부 동반 입국이 47.9%, 가족 전체 동반 입국이 11.6%이었다.

측정 도구

개인적인 절대적 박탈감 척도 : 본 연구진이 제작하여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척도 : 본 연구진이 제작하여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한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척도 : 박군석(2003)이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진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후 사용하였다.

개인적 정체감 척도 : Dignan(1965)이 개발한 자아정체감 척도를 서봉연(1975)이 번역하여 64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 역할 기대, 자기 수용, 자기주장, 자기 존재의식, 대인관계라는 8개의 하위 요인 각각에 8개씩의 문항을 할당하여 다각도로 자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척도는 대학생들에게만 적합한 문항이 5개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정체감 척도 : 성한기(2001)가 제작한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하도록 어구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후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 Crowne와 Marlowe (1964)가 제시한 33문항을 한국에서 10개 문항으로 단축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우울감 척도(CES-D) : Redloff(1977)가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최근 1주일 이내 응답자가 몇 일이나 해당 사건을 경험하는 지를 묻는 것으로서 ‘1점 = 1일 이하’, ‘4점 = 5~7일’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 만족감 척도 :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구성했는데,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방식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북한이탈주민의 척도별 점수와 신뢰도 계수

척도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신뢰도
개인적인 절대적 박탈감(북한 내)	8*	3.52(.80)	.68
개인적인 절대적 박탈감(남한 대비)	8*	3.25(.80)	.75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북한 내)	9*	2.81(1.00)	.91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남한 대비)	9*	2.84(1.07)	.91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인지)	3*	3.67(1.35)	.85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감정)	2*	3.09(1.30)	.83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행동 박탈)	7*	2.81(1.16)	.93
자아정체감	59***	2.68(.28)	.86
남한 사회적 정체감	19**	3.15(.36)	.71
북한 지역사회 정체감	20*	3.29(.71)	.85
사회적 바람직성	10**	3.35(.53)	.85
우울감	20***	2.08(.42)	.85
생활만족감	5**	2.41(.71)	.76

*는 7점 척도, **는 5점 척도, ***는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이 높음을 의미함.

연구 결과

먼저 북한이탈주민 내 비교를 통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성별, 연령대별,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 정착 경과 기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5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 중에서 상층이 하층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정착 경과 기간 중에서 3년 미만이 그 이상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느끼는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내 성원들과 비교해서 느끼는 수준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여자가 역시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40대가 제일 높았고 20대 이하가 유의미하게 제일 낮았으며,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위층인 경우가 제일 높았고 상위층인 경우가 유의미하게 제일 낮았고, 정착 경과 기간이 3년 미만 까지가 높았고 3년 이상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하여 초기 정착 조건 변인 중에서 성별과 연령대별 변인이 중요하고, 정착 과정 변인 중에서는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착 경과 기간 변인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내,외 비교 차원별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	북한이탈주민 집단 외 (남한 주민 대비)	<i>paired-t</i> 값
성별	남자 (n=55)	2.47(1.11)	2.40(1.11)	.757
	여자 (n=66)	3.10(.81)	3.21(.88)	-1.503
	<i>t</i> 값	-3.619***	-4.500***	
연령대별	20대 이하(n=59)	2.71(.97)	2.61(1.01) ^b	1.348
	30대 (n=24)	2.95(1.12)	3.24(1.27) ^{a,b}	-3.675**
	40대 (n=12)	3.40(.98)	3.44(.37) ^a	-.179
	50대 이상(n=26)	2.64(.92)	2.73(1.05) ^b	-.609
	<i>F</i> 값	2.006	3.693*	
북한 SES	하층 (n=36)	2.69(1.12)	2.56(1.11)	1.192
	중층 (n=62)	2.77(1.02)	2.87(1.08)	-1.330
	상층 (n=23)	3.11(.71)	3.20(.85)	-.696
	<i>F</i> 값	1.292	2.652	
남한 SES	하층 (n=47)	2.40(1.20)	2.37(1.27)	.264
	중층 (n=71)	3.07(.77)	3.18(.79)	-1.498
	상층 (n= 3)	3.30(.36)	2.26(.42)	2.646
	<i>F</i> 값	7.317***	9.682***	
가족 동반	단독 (n=49)	2.73(.92)	2.70(1.07)	.336
	가족 일부(n=14)	2.76(1.04)	2.98(1.20)	-1.516
	가족 모두(n=58)	2.89(1.07)	2.93(1.04)	-.443
	<i>F</i> 값	.343	.746	
정착 경과 기간	1년 미만 (n=15)	3.27(.70) ^a	3.37(.82) ^a	-.964
	2년 미만 (n=33)	3.02(.82) ^a	3.14(.80) ^a	-1.318
	3년 미만 (n=20)	3.21(1.00) ^a	3.18(1.14) ^a	.138
	4년 미만 (n=19)	2.45(1.13) ^b	2.28(1.12) ^b	1.100
	4년 이상 (n=34)	2.37(1.00) ^b	2.43(1.08) ^b	-.535
	<i>F</i> 값	4.740**	5.365**	

* $p < .05$, ** $p < .01$, *** $p < .001$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다음으로는 성격 변인과 사회적 정체감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수준을 살펴 보았다(표6 참조). 개인적 정체감인 자아정체감과 집단적 정체감인 북한지역사회정체감과 남한 사회정체감 모두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인 집단 내와 집단 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각 정체감 모두 집단 내와 집단 외 비교 상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곧, 각 정체감의 수준은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수준 즉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이든 외이든 상관없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정체감 변화를 통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키는 노력은 가능하다.

표 6.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내와 집단 외 비교 차원별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	북한이탈주민 집단 외 (남한 주민 대비)	paired-t 값
자아정체감	저수준	(n=32)	3.28(.75) ^a	3.31(.86) ^a	-.231
	중수준	(n=43)	3.23(.90) ^a	3.28(.95) ^a	-.507
	고수준	(n=46)	2.09(.84) ^b	2.10(.88) ^b	-.089
	<i>F</i> 값		27.259 ^{***}	25.039 ^{***}	
북한지역 사회정체감	저수준	(n=44)	2.13(1.09) ^b	2.07(1.00) ^b	.716
	중수준	(n=43)	3.13(.62) ^a	3.25(.77) ^a	-1.102
	고수준	(n=34)	3.29(.80) ^a	3.32(.91) ^a	-.277
	<i>F</i> 값		21.852 ^{***}	25.504 ^{***}	
남한 사회정체감	저수준	(n=27)	3.33(.70) ^a	3.41(.53) ^a	-.571
	중수준	(n=52)	2.98(1.00) ^a	3.09(1.06) ^a	-1.379
	고수준	(n=42)	2.47(.93) ^b	2.35(1.04) ^b	1.140
	<i>F</i> 값		7.005 ^{**}	10.760 ^{***}	

* $p < .05$, ** $p < .01$, *** $p < .001$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이는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의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분석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표7 참조). 여기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중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은 성별, 연령대별, 지각된 북한 내 사회경제적 수준,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수준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나머지 변인에 대해서는 Duncan 방식의 사후검증을 했는데, 연령대별에서는 40대가 제일 높았고, 지각된 북한 내 사회경제적 수준은 상위층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중위층과 하위층 순이었고, 남한 내 사회경제적 수준은 사후검증에서 수준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하였다.

정서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은 지각된 북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동반 여부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 대한 Duncan 방식의 사후검증에서, 지각된 북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상위층이 제일 높았고,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를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가족 동반 여부에서는 가족 모두 입국한 경우가 제일 높았고 단독 입국한 경우가 제일 낮았다.

행동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은 성별,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 정착 경과 기간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고, 나머지 변인에 대해 Duncan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정착 경과 기간별에서는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집단이 높았고, 4년 이상 집단에서는 낮았다.

표 7.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심의 북한이탈주민의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차이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박탈 측면
성별	남자	(n=55)	3.17(1.48)	2.89(1.50)	2.40(1.13)
	여자	(n=66)	4.09(1.07)	3.25(1.10)	3.14(1.07)
<i>t</i> 값			-3.960***	-1.519	-3.677***
연령대별	20대 이하	(n=59)	3.14(1.16) ^c	2.78(1.24)	2.70(1.16)
	30대	(n=24)	4.01(1.23) ^b	3.33(1.44)	2.72(1.16)
	40대	(n=12)	5.14(.72) ^a	3.63(.88)	3.37(1.24)
	50대 이상	(n=26)	3.90(1.45) ^b	3.31(1.35)	2.86(1.09)
	<i>F</i> 값			10.656***	2.396
북한 SES	하층	(n=36)	3.01(1.07) ^c	2.63(.98) ^b	2.75(1.26)
	중층	(n=62)	3.66(1.41) ^b	2.94(1.38) ^b	2.88(1.09)
	상층	(n=23)	4.75(.80) ^a	4.20(.88) ^a	2.68(1.19)
	<i>F</i> 값			14.322***	13.223***
남한 SES	하층	(n=47)	2.99(1.55)	2.71(1.47)	2.31(1.16)
	중층	(n=71)	4.10(1.02)	3.32(1.14)	3.15(1.03)
	상층	(n= 3)	4.11(.19)	3.50(1.00)	2.29(1.36)
	<i>F</i> 값			11.420***	3.325*
가족 동반	단독	(n=49)	3.50(1.30)	2.78(1.23) ^b	2.80(1.17)
	가족 일부	(n=14)	4.12(1.38)	3.75(1.20) ^{a,b}	2.43(1.09)
	가족 모두	(n=58)	3.71(1.38)	3.19(1.33) ^a	2.90(1.16)
	<i>F</i> 값			1.212	3.543*
정착 경과 기간	1년 미만	(n=15)	4.00(.87)	3.37(1.59)	3.11(1.03) ^a
	2년 미만	(n=33)	4.06(1.24)	3.02(1.15)	3.12(1.08) ^a
	3년 미만	(n=20)	3.80(1.09)	3.25(1.03)	3.14(1.13) ^a
	4년 미만	(n=19)	3.04(1.49)	2.63(1.29)	2.50(1.07) ^{a,b}
	4년 이상	(n=34)	3.43(1.55)	3.19(1.45)	2.33(1.19) ^b
	<i>F</i> 값			2.383	.910

* $p < .05$, ** $p < .01$, *** $p < .001$

a, b, c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각 요소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표8 참조). 여기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상관은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고 그 수준도 높은 수준에 있으나(대체로 $r = .50$ 이상) 정서적 측면이 행동적 측면과는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인지적 측면이 행동적 측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인지적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은 경우는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인데, 특이한 점은, 하위층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간의 상관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중위층과 상위층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인데 비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각각 행동적 측면과는 상관관계가 부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남자 집단과는 달리 여자 집단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상관관계는 정적인데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행동적 측면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집단은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위층 이상으로 높으면 행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인지와 정서 상관	정서와 행동 상관	인지와 행동 상관
성별	남자 (n=55)	.68***	.21	.42**
	여자 (n=66)	.32**	-.13	-.22
연령대별	20대 이하(n=59)	.62***	.13	.45***
	30대 (n=24)	.13	-.20	-.26
	40대 (n=12)	-.25	.54	-.54
	50대 이상(n=26)	.78***	.06	.18
북한 SES	하층 (n=36)	.60***	.42**	.59***
	중층 (n=62)	.51***	.10	.13
	상층 (n=23)	-.38	-.31	.16
남한 SES	하층 (n=47)	.58***	.32*	.36*
	중층 (n=71)	.44***	-.24*	-.19
	상층 (n= 3)	.00	-.84	-.55
가족 동반	단독 (n=49)	.37**	.05	.14
	가족 일부(n=14)	.83***	-.06	.10
	가족 모두(n=58)	.60***	.20	.35**
정착 경과 기간	1년 미만 (n=15)	.45	-.49	-.04
	2년 미만 (n=33)	.21	-.06	-.24
	3년 미만 (n=20)	.18	.07	-.09
	4년 미만 (n=19)	.80**	.53*	.52*
	4년 이상 (n=34)	.82***	.24	.42*

* $p < .05$, ** $p < .01$, *** $p < .001$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인지적 측면에서 발생되면 정서적 측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은데, 행동적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특정 속성을 지닌 집단의 경우에는 행동적 측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감을 개인과 집단 수준으로 구분하고, 다시 집단 수준은 북한지역 사회정체감과 남한 사회정체감으로 구분하여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9 참조). 여기서 자아정체감의 정도 차이는 인지적 측면과 행동 박탈 측면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북한지역 사회정체감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 박탈 측면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한 사회정체감은 인지적 측면과 행동 박탈 측면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9. 북한이탈주민의 정체감과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각 요인과의 관계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박탈 측면
자아정체감	저수준	(n=32)	3.72(.74) ^b	3.06(1.01)	3.63(.74) ^a
	중수준	(n=43)	4.29(1.04) ^a	3.41(1.20)	3.28(1.05) ^a
	고수준	(n=46)	3.06(1.65) ^c	2.80(1.51)	1.78(.61) ^b
	<i>F</i> 값		10.893 ^{***}	2.447	58.690 ^{***}
북한지역 사회정체감	저수준	(n=44)	2.90(1.64) ^b	2.22(1.11) ^c	2.25(1.19) ^b
	중수준	(n=43)	4.19(1.06) ^a	3.36(1.05) ^b	3.10(.92) ^a
	고수준	(n=34)	4.02(.67) ^a	3.87(1.19) ^a	3.15(1.13) ^a
	<i>F</i> 값		13.858 ^{***}	23.162 ^{***}	9.201 ^{***}
남한 사회정체감	저수준	(n=27)	4.39(1.09) ^a	3.44(1.19)	3.38(.91) ^a
	중수준	(n=52)	3.73(1.31) ^b	3.10(1.06)	3.14(1.09) ^a
	고수준	(n=42)	3.47(1.28) ^b	3.07(1.62)	2.11(1.00) ^b
	<i>F</i> 값		4.099 [*]	.731	15.287 ^{***}

* $p < .05$, ** $p < .01$, *** $p < .001$

a, b, c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아정체감이 중간인 집단이 인지적 측면과 행동 박탈 측면에서 높은 상대적 박탈감을 보이고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은 인지적 측면은 낮는데 행동 박탈 측면은 높게 상대적 박탈감을 보이며,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은 인지적 측면은 중간 정도 이지만 행동 박탈 측면에서는 낮은 상대적 박탈감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자아정체감이 높거나 낮은 집단보다는 중간인 집단이 상대적 박탈감을 고르게 많이 가지고 있고 행동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지역 사회정체감이 중간 이상인 집단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 박탈 측면 모두에서 고르게 높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보이고 있고, 낮은 집단은 낮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보였다. 남한 사회정체감이 낮은 집단은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높았고, 중간 이상인 집단은 인지적 측면과 행동 박탈 측면 모두에서 낮았다.

개인적인 절대적 박탈감,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10 참조). 여기서는 개인적인 절대적 박탈감과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와 집단 외 즉, 남한 주민과의 비교로 세분하였고, 이들을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각 요인과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와 집단 외의 절대적 박탈감이 모두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모두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대부분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집단 내·외 간에 .81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유의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집단 내와 외로 구분한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기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우애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일치될 수 있음이 드러났고, 이들이 인지적 측면과 행동 박탈 측면과 .40 내외의 상관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 정서적 부문과만이 유의미하지 않았다($r = .05$, n.s.).

표 10.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절대적 박탈감, 개인적인 상대적인 박탈감,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북한이탈주민 내 비교 개인 절대적 박탈감	1.00	.35**	.52***	.36**	.55***	.14	.49***
2. 북한이탈주민 외 비교 개인 절대적 박탈감	.18*	1.00	.63***	.65***	.61***	.51***	.37***
3. 북한이탈주민 내 비교 개인 상대적 박탈감	.32***	.53***	1.00	.82***	.66***	.48***	.67***
4. 북한이탈주민 외 비교 개인 상대적 박탈감	.19*	.55***	.81***	1.00	.70***	.53***	.57***
5.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인지)	.44***	.41***	.43***	.50***	1.00	.68***	.42**
6.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정서)	.05	.39***	.41***	.46***	.55***	1.00	.21
7.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행동)	.34***	.37***	.63***	.54***	.22*	.09	1.00

* $p < .05$, ** $p < .01$, *** $p < .001$

하단은 전체 상관치이며, 상단의 굵은 글씨는 남자, 이탤릭체 글씨는 여자 집단의 상관치임.

하지만, 남자들은 이러한 전체적인 관계 양태와 유사한데, 여자들은 대부분 전체적인 관계 양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 비교를 통한 절대적 박탈감이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내 비교 절대적 박탈감이 다른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외 구성원과 비교하여 느끼는 절대적 박탈감이 북한이탈주민 내와 외 비교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내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북한이탈주민 외 구성원과 비교하여 느끼는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행동 박탈 부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자들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인지적 측면이 정서적 측면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만 나머지 부분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들은 절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과,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과, 그리고 집단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모두가 유기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특히 정적 상관을 평균 .40이상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집단적 행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여자들은 집단 외 대비 절대적 박탈감과 집단 내의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집단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의 행동 박탈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자들은 개인적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집단적 행위화 가능성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리고 집단 내와 집단 외 차원에서 분석한 것인데, 이들이 앞서 제기한 타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이 이들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하여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를 표11에서 확인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바람직성은 관련 모든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Duncan 사후 검증 결과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 박탈감 전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바람직성 저 집단(n=46)	사회적 바람직성 중 집단(n=35)	사회적 바람직성 고 집단(n=40)	F
북한이탈주민 내 비교 개인 상대적 박탈감	3.17(.66) ^a	3.44(.74) ^a	1.85(.82) ^b	52.013 ^{***}
북한이탈주민 외 비교 개인 상대적 박탈감	3.15(.87) ^a	3.44(.72) ^a	1.96(.97) ^b	32.089 ^{***}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인지)	3.88(.76) ^a	4.16(1.03) ^a	3.00(1.81) ^b	8.854 ^{***}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정서)	3.43(1.17) ^a	3.36(1.19) ^a	2.45(1.33) ^b	8.026 ^{***}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행동 박탈)	3.26(1.01) ^a	3.33(.95) ^a	1.81(.81) ^b	34.199 ^{***}

* $p < .05$, ** $p < .01$, *** $p < .001$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앞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변인들을 각각 살펴 보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변인이 좀 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12 참조). 각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종속변인은 각각 1개로 하고, 독립변인은 남한 사회정체감, 북한 사회 정체감, 자아정체감,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하였다.

표 12. 북한이탈주민의 각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t
북한 사회정체감	A	.293	.086	3.031**
자아정체감		-.264	.069	-3.007**
사회적 바람직성		-.232	.054	-2.246**
남한 사회정체감	B	-.185	.034	-2.993**
북한 사회정체감		.419	.176	5.369***
자아정체감		-.337	.114	-4.197***
남한 사회정체감	C	-.238	.057	-3.892***
자아정체감		-.390	.152	-4.134***
북한 사회정체감	D	.304	.092	3.225**
북한 사회정체감		-.593	.352	8.023***
자아정체감	E	-.469	.220	-5.585***
남한 사회정체감		-.327	.107	-5.379***
사회적 바람직성		-.194	.038	-2.338*

* $p < .05$, ** $p < .01$, *** $p < .001$

A: 북한 집단 내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B: 북한 집단 외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

C: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인지), D: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정서), E: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행동)

먼저, 북한 집단 내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에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는 4개의 변인 모두가 유의미하였는데, 북한 사회정체감이 8.6%, 자아정체감이 6.9%, 사회적 바람직성이 5.4%, 남한 사회정체감이 3.4%의 설명력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24.3%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런데, 집단 정체감은 남한과 북한에 대한 사회정체감을 합한 12.0%의 설명력을 보였고, 개인적 정체감은 6.9%에 그쳤다.

북한 집단 외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에는 남북한 사회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북한 사회정체감이 17.6%로 제일 높았고, 자아정체감이 11.4%, 남한 사회정체감이 5.7% 순으로 설명력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34.7%의 설명력을 보였다. 여기서도 남북한 사회정체감을 합한 수치는 23.3%이었고, 개인적 정체감은 11.4%이었다.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인지적 측면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정체감과 자아정체감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이들이 각각 9.2%와 15.2%의 설명력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24.4%의 설명력을 보였다. 여기서는 개인적 정체감이 더 많은 설명력을 보였다.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정서적 측면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정체감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35.2%이었다.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행동 박탈 측면에 대해서는 자아정체감과 남한 사회정체감,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각각 22.0%, 10.7%, 3.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36.5%의 설명력을 보였다. 여기서는 개인적 정체감이 더 많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북한 사회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이 각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 사회정체감이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행동 박탈 측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방향은 거의 정적이었다. 그런데, 남한 사회정체감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부적

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자아정체감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정서적 측면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상대적 박탈감 영역에서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북한 집단 내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행동 박탈 측면에서만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그 설명력은 5% 정도로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에서는 북한 사회정체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정체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고,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행동 박탈은 집단행위화를 의미하는데, 이 점에서 자아정체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곧, 집단적인 행위 방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표출되지 않게 하려면,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잘 형성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각 상대적 박탈감 요인들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13 참조). 여기서 독립변인은 북한 집단 내·외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3개 하위 요소이며, 종속변인은 각각 우울감과 생활만족감으로 하였다.

표 13.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각 상대적 박탈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t
북한집단 내 개인적 상대박탈감		우울감	.281	.079	2.835**
집단적 상대박탈감(정서)			.273	.075	3.815***
북한집단 외 개인적 상대박탈감			.248	.062	2.381*
집단적 상대박탈감(인지)			.168	.028	2.288*
집단적 상대박탈감(인지)		생활만족감	.672	.452	9.908***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우울감에는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행동 박탈 측면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 집단 내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7.9%,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정서적 측면이 7.5%, 북한 집단 외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6.2%,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인지적 측면이 2.8%로서, 총 24.4%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런데, 이들 변인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곧 상대적 박탈감을 지닐수록 우울감이 많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생활만족감에는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인지적 측면만이 정적인 방향으로 45.2%라는 높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곧 어느 정도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지니는 것이 생활만족감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45.9%를, 여자의 경우에도 34.5%라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다만, 여자의 경우에는 북한 집단 외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부적인 방향으로 4.1%의 설명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논의

앞서 예상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들이었는데, 이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정체감과 남한 사회정체감은 부적으로, 북한 사회정체감은 정적인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내·외 대비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각 정체감은 북한이탈주민의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 지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절대적 박탈감은 상대적 박탈감과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초기의 예상과 다른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는 초기 정착 조건 변인 중에서 성과 연령이 중요하고, 정착 과정 변인 중에서는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착 경과 기간 변인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표5 참조). 그런데,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위층인 사람들은 남한 주민 대비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위층과 상위층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중위층의 상승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좀 더 명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상위층의 비율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추후에 상위층을 할당 표집하는 방식의 연구에서 이 기제가 충분히 분석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박근석(2002)에 따라 인지, 정서, 행동 박탈 측면으로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파악해 보았는데(표7 참조), 각 하위 요인들이 연령대별, 지각된 북한 내 사회경제적 수준, 지각된 남한 내 사회경제적 수준 변인, 가족 동반 여부 변인의 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특히, 북한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상위층에 있었다고 지각하고 있는 집단과 가족 모두와 동반 입국한 집단에서 정서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가족 모두 동반 입국한 경우에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 이는 이들이 이기적인 박탈감보다 우애적인 박탈감 형태로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구성 요소들 간의 역할 구조를 볼 때(표8 참조), 인지적 측면에서 발생되면 정서적 측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은데, 행동적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속성을 지닌 집단의 경우, 즉, 남자, 20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하위층인 경우, 정착 경과 기간이 3~4년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동적 측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바람직성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각하는 모든 영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표12 참조), 이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사회적 정의와 연계 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Dar와 Resh(2001)가 언급한 사회 정의와 상대적 박탈감 특히, 우애적 상대적 박탈감이 관련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남북 분단의 상황에 처해 있고 특수한 이주를 한 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각 상대적 박탈감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표14 참조), 앞서 예상한 바대로 대부분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울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생활만족감에는 다소의

외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다른 측면은 생활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인지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집단 차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것 즉, 우애적 박탈감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 처한 현실은 상대적으로 열악해도 자신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활만족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채정민(2003)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사회정체감 유지 선호 전략과 유사한 개념인 북한 문화지향성을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 점을 본 연구에 적용해서 본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사회정체감을 많이 가질수록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인지적 측면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생활만족감을 높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이 된 독일에서 동독 출신자들이 서독 출신자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지니게 된 점을 인지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과 향후 통일을 염두해 둔 상황에서 북측 출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강하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이 기제의 이해와 그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에 이 분야에서 간과했거나 다루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루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절대적 박탈감과 관련짓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절대적 박탈감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절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대체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강했다. 이는 곧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측면에 대한 실제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이에 기반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앞서 Townsend(1979)가 제시한 순수한 의미의 개인의 주관적 혹은 집단적 박탈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객관적 박탈과 최저 생계 기준과 같은 관습적 혹은 규범적 박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복합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완화를 위한 노력에는 절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집단적 수준에서만 다룬 점을 비판하면서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일부 연령대별에서만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 나타났고 나머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표12와 표13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의 실익은 부분적으로만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개인적인 수준의 상대적 박탈감을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와 외로 구분한 것도 처음 시도되었는데, 표1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적으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유의미한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는 북한에서 상위층에 속해 있다가 남한에 와서도 이것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일부 북한이탈주민이 위화감을 가지는 것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이주시에 이러한 계층의 수평 이동이 잘 확보되지 못하는 경향이 높은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남한 정부가 이들의 정보 가치 등을 중시하여 이렇게 대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도 추정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이들 집단 내의 분산도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이들 집단 내 구성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전체적이고 명확하게 실익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실익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도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와 소수 집단화가 좀 더 진행된 상황에서는 그 실익의 정도를 더 입증할 것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 연구진은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지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그 변화 유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에서는 상당한 수확이 있었다. 즉, 이들은 자아정체감이 약하게 형성된 상태이고 남한 사회정체감이 약하고, 북한 사회정체감이 강할수록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향후 이 측면들을 반대로 강화시키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기존에 박근석(2002) 등이 제시한 집단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달리 개인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해준 의미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우애적 박탈감 형태로 느끼는 경향이 높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것은 통일 독일에서 발생하는 형태와 유사한 상황이다. 그리고 남자, 20대,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한과 북한에서 하위층에 속하는 사람, 정착 경과 기간이 3~4년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인지적 측면에서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행동의도 박탈 측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것은 향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들 집단에 특정하여 이들의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며, 나아가 남한 사회가 이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취급하지 않은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주목했는데, 그 결과에서 각 상대적 박탈감은 우울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상대적 박탈감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들 대부분의 상대적 박탈감은 생활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인지적 측면의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새로운 삶의 적응을 위한 자극제로서 기능한다는 동기론적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Hogg와 Abrams(1988)가 제시한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들은 불리한 사회정체감을 지닌 즉, 자신이 속한 집단 차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경우에는 사회적 이동이나 사회적 창조를 행동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꼭 좌절감으로 이어져서 공격성 표출 행동과 같은 상태로 드러난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적응 동기로서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더 사회 정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대부분의 일반인과 일부 학자들이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수준이 무조건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지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행동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이 문제의 위험성은 현저히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첫째, 설문지에 의존한 명시적 반응 위주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냈는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암묵적 반응 혹은 투사법에 의한 반응, 나아가 현장 관찰법과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적 박탈감과 개인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들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들의 구성 항목이 박군석(2003)이 제작한 집단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항목과 일치시킬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원인의 대부분은 이들 개념 간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크고, 상호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설정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하여 상호간에 균등한 조건에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 상황때문, 즉,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하나의 집단으로는 보지만 대응 집단으로 보지는 않는 상태에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역시 균등하게 다룰 수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광익 (1999). 문화소통과 문화 통합: 통일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이정복, 신옥희, 이승훈, 임현진, 김광익, 이장호, 박삼옥, 조홍식, 강현두 공저.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145-17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동직 (1992).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에 있어서 자아정체감 수준간의 차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 김남희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75-89.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 2000년도 춘계 심포지움, 19-45.
- 박군석 (2003).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에 따른 상대박탈 경험 및 집합 행동: 영호남인의 지역간 갈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40-162.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http://www.dongposarang.or.kr>.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한기 (2001). 한국관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5(3), 33-48.
- 심진섭 (1995). 남북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호택 외 공역 (1996). *우울증 인지치료*. 서울: 학지사.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와 정착 지원의 새로운 접근. 제 11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99. 2. 26) 발표논문.
- 이금순, 강신창, 김병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 이수정 (1999).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68-79.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전우영 (1999). 남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전태국 (2000). 사회통합의 전망과 과제.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115-129.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 한성열 (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01-126.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78-94.
- Adler P. S. (1975). The transitional experience: An alternative view of cultural shock.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5, 13-23.
- Crosby F. (1976). A model of egoistical relative deprivation. *Psychological Review*, 83, 85-113.
- Crowne, D. P. & Marlowe, D. (1964). *The approval motive: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ew York: Wiley.
- Dar Y. & Resh N. (2001). Exploring the multifaceted structure of sense of depriv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63-81.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476-483.
- Erikson E. H. (1963). *Chil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Folger R. (1986). A referent cognition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In J. M. Olson, C.

- P. Herman, & M. P. Zanna(Eds.),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 Ontario symposium*(Vol. 4, 33-45). Hillsdale, N.J.: Lawrence Eelbaum Associates.
- Folger R. (1987). Reformulating the preconditions of resentment: A referent cognition model. In J. C. Masters & W. P. Smith (Eds.), *Social comparison, social justice, and relative deprivation*(183-215). Hillsdale, N.J.: Lawrence Eelbaum Associates.
- Folger R. & Martin, C. (1986). Relative deprivation and referent cognition: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531-546.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Re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on twentieth century Eng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nciman W. G. (1968).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London: R.K.P.
- Schmitt M. & Maes J. (2002). Stereotypic ingroup bias as self-defense against relative deprivation: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 309-326.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Tajfel H. (1978). The achievement of group differentiation. In H. Tajfel (Eds.),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pp. 77-88). New York: Academic Press.
- Tiraboschi M. & Maass A. (1998). Reactions to perceived depriv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 a cross-cultural comparis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403-421.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38.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Relative depriv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 the influence of individual identity and social identity

Jeong-Min Chae Jong-nam Kim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ve deprivation and individual and social ident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how much the relative deprivation influence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For this, we treated the concept of relative deprivation both group level and individual level, and both in-group situation and out-group situation. And we included the absolute deprivation, and developed the absolute deprivation scale.

We surveyed 121 North Korean Defectors' relative and absolute deprivation, individual and social identity,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dex. We found that the absolute deprivation correlated the relative deprivation significantly. And, we got the result that individual identity and the social identity for South Korea affect the absolute deprivation and relative deprivation positively, and the social identity for North Korea affect the two deprivation negatively. This result resemble the fraternal deprivation pattern of the Deutch born in the east region. Finally, the two deprivation of the North Koreans affected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Key Words : relative deprivation, absolute depriv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North Korean Defector, reunification, Culture**